

펀드투자에서의 불완전판매 현황에 대한 연구

최현자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이지영·김민정 (서울대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최근 들어 금융소비자들의 투자 행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간접투자가 급증하면서 간접 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 판매에 관한 연구는 포괄적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이해 및 보호 측면(허은영·최현자, 1999; 김성훈·김우진·안정석, 2001; 김진호, 2005; 박사현, 2006; 정운영·김영신, 2007 등)과 보험 상품을 대상으로 법적인 측면에서 정보제공 또는 고지의무에 관한 논의(정호열, 1987; 최기원, 1991; 정진욱, 1998; 김용구, 2005; 송달섭, 2008; 유주선, 2008; 한창희, 2008; 김은경, 2008 등)에 대해서 주로 이루어져왔다. 간접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연구원 등에서 실시한 의식 및 실태 조사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 투자자교육재단에서 실시한 펀드투자자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금융소비자들이 간접투자 상품에 가입함에 있어 투자설명서 교부, 상품설명서, 투자위험에 관한 설명서 및 운용보고서에 대한 교부 여부 및 이해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여 펀드의 불완전판매 현황을 살펴보았다.

펀드가입 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았는지를 조사한 결과 투자자의 74.2%가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18.1%는 교부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7.6%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상품설명서 교부 및 정보습득에 관한 조사를 한 결과 60% 이상의 투자자가 상품설명서를 읽어 보았으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읽어서 잘 이해한 경우는 전체 투자자의 1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설명서를 보지 못했다고 응답한 투자자도 6.2%에 달하였다. 펀드가입 시 투자위험에 관한 설명 및 서명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 정도만(50.2%) 투자위험에 관한 설명을 알아듣고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37.5%는 설명을 듣고 서명도 하였으나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더욱이 응답자의 6.7%는 설명을 듣지 않고 서명을 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3.4%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펀드상품의 가입 시 해당 상품의 운용보고서를 읽어 보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17.3%가 운용보고서를 읽어 보았으며 내용을 잘 이해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54.1%는 읽어보았으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어려울 것 같아서 읽지 않은 경우는 10.3%, 관심이 없어서 읽지 않은 경우는 5.1%였으며, 상품의 운용보고서를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12.4%에 달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간접투자 상품의 경우 일반 예금 상품과는 달리 복잡한 운용 구조를 가지고 있고 원금 손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 행태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에 있어서 교차모집제도가 도입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으나 불완전 판매에 대한 대안은 뚜렷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간접투자 상품에 대해서도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명확한 의무 및 규제나 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금융시장의 유연화 및 개방화 추세에 따라 간접투자 상품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금융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지위와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발생하는 제도적 피해의 경우 입법적 차원의 직접적 규제조치가 요구되며, 동시에 교육과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구조적 비대칭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예방적 차원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